

“도요타 꼴 되면 끝장이다”

현대·기아차, 협력사 품질 삼중점검

삼성광주전자, 부품 ‘불량제로’ 도전

“무결점 ‘품질 혁명’이 살길이다.”
도요타 리콜 사태 이후 지역 제조업체에서도 ‘품질 경영’이 화두가 되고 있다. 협력업체와 함께 품질을 점검하는가 하면, 웰리티 마케팅 운동 등 품질 혁신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4일 기아차 광주공장 등 지역 제조업체들은 도요타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정몽구 회장은 지난 1일 경영전략회의를 열어 “도요타 사태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며 품질 관리 강화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는 우선 400~500여 개에 달하는 국내외 1차 협력업체 가운데 차량 안전과 직결된 핵심 부품업체를 선별한 뒤 점검팀을 파견해 집중적인 품질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도요타 차량에서 문제가 됐던 가속페달이나 제동장치 등 핵심부품에 대해서는 1차로 협력사에서 품질을 검증한 뒤 이를 다시 본사 연구·개발 및 구매팀에서 2차로, 모듈 조립을 담당하는 협력모비스에서 3차로 점검하는 이중·삼중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지난해 말부터 시행해 온 ‘GQ-3355(Global Qual-

ity-3355 : 제품 품질은 3년 내 세계 3위 이내, 품질 브랜드는 5년 내 세계 5위 이내 달성)’ 활동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10년 무고장·무결점 품질 실현 ▲가장 안전한 차량 생산 ▲높은 품질 기반의 생산현장문화 정착 등을 실현하는 ‘웰리티(품질) 마케팅’ 실태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도 일일 품질결산 지원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자율책임 품질보증을 실시하는 한편 품질혁신 활동 중 최고의 사례들을 발굴해 제철소 전체로 전파하고 있다.

광주지방조달청은 부실 납품 균열을 위해 ‘계약규격 제시→생산→납품’ 단계별로 품질관리가 부실한 조달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도요타 리콜 사태 이후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등 지역 제조업체들이 품질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 쏘울 생산 리인에서 작업에 열중하고 있는 근로자들.

삼성광주전자 안운태 과장은 “지난 1995년 통화 품질에 문제가 있었던 휴대전화 15만대를 불태우는 등 품질의 삼성을 추구해왔다”며 “모든 임직원들이 소명의식을 갖고 불량제로에 도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쏘울을 생산하는 광주1공장의 경우, 품질 혁명을 이뤄 전세계 공장의 품질을 평가하는 세계적 권위의 ‘플랜트 어워드’상에 도전장을 냈다.

삼성광주전자는 ‘품질이 생명’이라는 모토 아래 무결점 제품이 아니면 내놓지 않는 엄격한 품질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매달 한 차례씩 협력사 담당자와 함께 새벽시장을 운영해 부품 관련 문제점을 점검, 개선해 나가고 있다.

회사 전반에 대한 제안 활동도 활발하다. 매주 목요일 품질 개선과 관련한 분임조 토의를 개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이를 생산 현장에 반영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비맥주 광주공장 ‘수출 첨병’

OB블루와 카스 등 지난해 779만 상자 수출… 전년보다 24% 신장

오비맥주 광주공장이 대한민국 맥주 수출의 전진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4일 오비맥주 광주공장에 따르면 지난해 오비맥주는 약 779만 상자(500ml 20병 기준)를 수출, 전년보다 24.3%의 높은 성장을 기록. 국내 맥주 수출 1위 자리를 확고하게 다졌다.

광주공장은 전체 생산량 1천425

만상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730만 상자를 수출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오비맥주 수출량의 93.7%를 차지하는 것이다. 오비맥주의 전체 수출량은 대한민국 맥주수출의 60%를 차지한다.

특히 오비맥주는 지난해 일본에

만 380만상을 수출, 전년에 비해 65%의 신장률을 보이는 등 일본 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광주공장은 OB블루와 카스 등 자체 상표 이외에도 OEM(주문자 상표 생산) 방식으로 블루걸(Blue

Girl), 데스터(Dester)와 제3맥주(맥아 비울이 50% 이하인 베르겐브로이, 노이벨트 등 20여종의 제품)를 생산하고 있다.

유럽 스타일인 데스터 맥주는 지난해 10월부터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 수출된다. 이어 몽골과 홍콩에는 각각 카스, 블루걸 등이 납품돼 맥주의 한류 열풍을 선도하고 있다.

카스는 몽골 지역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굳혔다. 지난 1998년 몽골 진출 이후 몽골의 ‘No.1 프리미엄 맥주’로 자리잡아 경쟁사 제품

보다 10% 가량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다. 몽골 맥주시장 점유율은 무려 20%에 달한다.

김영규 광주공장장은 “오비맥주 광주공장의 괄목할 만한 성장은 지난 1987년 5월 가동을 시작한 이후 20년 넘게 쌓아온 광주공장만의 고유한 맥주 양조 기술력에 힘입은 것”이라며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오비맥주 광주공장에서 생산·수출되고 있는 맥주 상품들.

품질관리를 통해 수출·프리미엄 제품 전문 생산공장으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운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 기업 CEO “경기 저점통과…회복 국면”

경영자총협 88개사 조사

광주지역 기업의 CEO(최고경영자)들은 현재 경기 상황이 저점을 통과해 회복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 달 회원기업 88개사를 대상으로 ‘2010년 경제전망 조사’를 벌인 결과 75%의 회원사가 경기상황을 저점

을 통과한 후 회복국면에 진입한 것

으로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경기저점 통과 후 회복국면 진입’이 43%, ‘더블딥(Double dip : 이중 저점)의 첫번째 저점을 통과한 상황’ 27%, ‘회복국면에서 본격적인 성장국면 진입’ 5% 등이었다.

올해 경제성장을 대비해 ‘3.0~4.0%’ 이하가 될 것’이라는 응답이 47%로 가장 많았고 4.5% 이상으로 내다본 응답도 18%나 됐다. 2.5% 이하의 낮은 성장률을 전망한 응답은

35%였다. 이 같은 밝은 전망을 뒷받침하듯 을 경영계획에 대해서는 36%가 ‘확대경영’이라고 답했고 ‘현상유지’는 32%, ‘긴축경영’은 25% 등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확대경 영 9.8%, 긴축경영 67.1%라는 응답이 나왔던 것과 대조적이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소주담합’ 과징금 272억 부과

인진로가 먼저 가격을 인상하면 나머지 업체들이 비슷한 비율로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담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주업계는 “가격 조정 권한이 없는 업체들에게 담합했다며 과징금을 물린 것은 부당한 조치”라며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가격을 조정한 뒤 그 가격을 제시해 승인을 받는 상황에서 업체들에게 담합 판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과징금 경감은 큰 의미가 없는 만큼 타 업체들과 함께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공정위는 소주업체들이 가격인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선도업체

☎ 1588-3088

설 연휴 산재·긴급전화

설 연휴에 산업재해나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험 상황 신고실’(☎ 1588-3088)로 전화하면 전국 어디서나 신속한 초동조치와 필요한 기술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전국 47개 지방 노동관서별로 산재 예방 및 비상 대응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연합뉴스

공정위는 소주업체들이 가격인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선도업체

코스피지수

▲ 1,616.42 (+1.40)

코스닥지수

▲ 516.23 (+0.91)

금리(국고채 3년)

▲ 4.26% (-0.01)

원·달러 환율

▲ 1,150.90원 (+1.9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지역 주택건설업체 수도권서 ‘선전’

광주·전남지역 주택건설업체들이 지난해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등에서 선전하면서 주택공급이 평년작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주택건설업체들의 주택건설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주·전남지역 18개 업체가 총 1만2천 700세대를 전국에 공급했다.

이 가운데 광주·전남 공급 물량은 광주 남구 진아리채 319세대와 회순대선배로힐 354세대, 청미래주택 138세대, 순천 두산위브 1천317세대 등 총 2천208세대에 그쳤다.

반면 지역 주택건설업체들은 수도권 등에서 선전하며 1만546세대를 타 지역에 공급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대인동삼일부동산

☎ (FAX) 223-1772 휴 011-602-2532
(광주문화신보관,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신가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순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을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을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상무랜드공인중개사

☎ (FAX) 383-5221 휴 011-609-5221
(구 상무대 정문)

상가임대

(상무지구 세정아울렛과 백양사이)

층별	임대 3.3㎡당	권장 용도
1층 555㎡ (169평)	1,800만원	금융기관 의류 등
2층~4층 400~500㎡	400~500㎡	병원, 학원 사무실 등

층별	임대 3.3㎡당	권장 용도
9층 350㎡ (107평)	350만원	학원, 특수 사무실 등

층별	임대 3.3㎡당	권장 용도
10층 495㎡ (150평)	350만원	

맞주문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 드리며,
정리하실 물건
팔아드려겠습니다.
★ 아무때나 전화 주십시오★

분수동지구 롯데마트 앞 임·양 멀리스타워빌딩 대

※각층 약 230평(분할가능)※

○대지매매○

• 수완동 롯데마트 앞 10×10×6m 코너 상업용지 270㎡ 투자최고, 수익률 최고, 평당 225만원

○점포임대○

• 수완동 주변대로변(35m, 4번로) 3층사무실 140㎡ 평당 110만원

의원, 학원, 사무실적 합

• 수완동 삼성전자옆 외환은행건물(메디컬센터) 2층 620㎡ 평당 150만원(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적합